

(R) 취소된 독일마을 맥주축제, 가상공간에서 만난다

2021-11-02 김성수(관리) 기자

(남) 남해의 대표 축제,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올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가상공간에 축제 현장을 구현하고 각종 이벤트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여)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다고 합니다. 남경민 기자가 미리 살펴봅니다.

【 기자 】

남해의 대표축제인
독일마을 맥주축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축제가 취소되며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 인터뷰 : 임광철·김진복 / 경기도 성남시

- "안 그래도 오면서 독일 안 데리고 갈거면 여기 축제에 와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왔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

▶ 인터뷰 : 임광철·김진복 / 경기도 성남시

- "안 열리는 건 아쉽게 생각하고요. "

남해군은
이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대신한
온라인 축제,
'다이브 남해, 독일마을 국제이벤트'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스탠드업]

네이버 제페토라는
가상공간 플랫폼을 통해
이곳 남해독일마을 일대가
온라인상에 구축됐습니다.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
실제 독일마을을
방문한 것처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 독일마을을 통해
개막식이 열리는데,
접속자들은 거리를 누비며
인증샷 남기기, 해저터널 달리기 등
경품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남에서는
지역 축제를 가상공간에서
재현해내는
첫 번째 시도입니다.

▶ 인터뷰 : 조영호 /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

-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남해군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 축제로 만들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 인터뷰 : 조영호 /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

- "온라인을 통해서 독일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미지를 높여서 내년도에 오프라인에서 좀 더 크게..."

이와 함께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들도
계획돼 있습니다.

신청자의 집으로
사전에 배송된 키트로
수제맥주를 만들고,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일 클래식 음악
갈라 콘서트를 비롯해
'독일마을의 지속가능한
미래비전'이란 주제로 열리는
원탁회의 유튜브 생중계까지.

다채로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채워진 이번 축제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개최됩니다.
scs남경민입니다.